



중군당 오페라 희망이야기 행복콘서트 개최

전북대학교병원 9일 본관 1층 로비에서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을 위한 '중군당 오페라 희망이야기 행복콘서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중군당과 한국메세나협회가 함께 마련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에게 문화예술을 통한 치유와 위로의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했다.

이날 공연에는 환우와 가족, 내방객, 병원 직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무대에는 카르디오를 비롯해 한아름 김제민 박시인 등 국내 정상급 공연진이 참여해 오페라 뮤지컬 영화 OST 등 친숙한 곡들을 선보이며 큰 호응을 얻었다.

공연장을 가득 채운 아름다운 선율은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정서적 안정과 위안을 전했으며, 의료진에게는 일상 업무 속 재충전의 시간을 제공했다.

한편 전북대병원 9일 본관 1층 로비에서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을 위한 '중군당 오페라 희망이야기 행복콘서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간헐 전복지부, 홀몸 어르신 대상 밀만찬 나눔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북특별자치도지부는 9일 지역 사회복지관과 연계해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조아름' 맞이 밀만찬 배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헐 전복지부 임직원들은 어르신들의 기력 회복에 도움이 되는 제철 식재료로 준비한 밀만찬을 직접 각 가정으로 전달했다. 또한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와 생활 여건을 살피고 영양사실 점검과 안부 확인을 병행하며 정서적 지원에도 나섰다. /오상근 기자



이중선 익산시의원 등, 다자녀가구 주거환경 개선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중선 의원이 최근 지역 내 취약계층 아동의 주거환경을 정비하기 위한 현장 봉사활동에 동참하며 민생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국제구조개발 NGO 굿네이버스가 주관한 이번 봉사활동은 아동 다자녀가구 아동환경개선 청소 봉사로 다자녀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정비해 아동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성장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 의원은 현장에서 봉사자들과 함께 직접 쓰레기를 치우고 집안 내부를 청소하며 땀방울을 흘렸다. 특히 이 의원은 과거 굿네이버스에서 학교폭력예방강사로 활동하며 아이들의 안전과 권리 보호를 위해 헌신했던 특별한 인연이 있어 이번 아동환경개선 봉사에 더욱 깊은 애정을 갖고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산=이재준 기자

고창 농어촌공, 고향사랑기부금 400만원 기부

한국농어촌공사 고창지사(지사장 이진국)가 지난 8일 고창군청을 찾아 400만원 상당의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했다.

한국농어촌공사 고창지사는 고향사랑기부제도가 시행된 이후로 2024년에 280만원, 2025년에 310만원에 이어 올해까지 3년간 고창군에 마음을 전해왔다.

고창군은 기탁받은 고향사랑기부금을 군민 복리 증진에 활용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대시습 농악 일반부 '장원'

부안군립농악단, 3년 연속 수상 끝 '최고상'

부안군립농악단(단장 정호영 부군수)이 대한민국 최고 권위의 전통예술 경연대회인 제52회 전주대시습놀이 농악 일반부에서 최고상인 장원(국회의장상)을 수상하며 상금 1,500만원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부안군립농악단은 지난 6일 전주 국립무형유산원 광장에서 열린 농악 일반부 경연에 참가해 부안농악 판굿을 비롯한 고깔소고놀이, 부포놀이, 설장고놀이 등을 선보이며 부안농악 특유의 전통성을 바탕으로 역동적이고 흥겨운 공연을 펼쳐 심사위원과 관객들의 찬사를 받았다.

특히 이번 수상은 2024년 장려상, 2025년 차하 수상에 이어 꾸준한 기량을 갈고 닦아 이룬 3년 연속 수상이자 마침내 정상에 오른 결실이라는 점에서 더욱 뜻 깊다.

전주대시습놀이는 전주시와 (사)전주대시습놀이보존회가 주최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전통예술 경연대회로, 판소리·무용·민요·농악 등 다양한 분야의 명인과 예술인들이 참가해 실력을 겨루는 전국 규모의 행사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대한민국 최고 권위의 전통예술 경연대회인 전주대시습놀이에서 장원을 수상한 부안군



립농악단 단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수상은 부안농악의 전통성과 예술적 가치를 전국에 널리 알린 뜻깊은 성과로, 앞으로도 전통문화 계승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안군립농악단은 지난 2016년 창단 이후 부안농악의 역사와 정체성을 바탕으로 군민 정서함양과 전통농악의 보전·계승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이어 오고 있으며 임방을 국악계 전국대회 대상 수상 등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지역 대표 농악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민선9기 남원시장직 인수위원회 출범식... 미래비전 수립

민선 9기 남원시장직 인수위원회가 9일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시정 인수와 미래 비전 수립에 착수했다.

이날 출범식에서 양충모 남원시장 당선인은 인수위원 및 자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며, "인수위원회는 민선 9기 남원시장의 밑그림을 그리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하며서 최용택 위원장 등에게 감사를 전했다.

이어 시민의 기대와 염원을 시정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시민의 뜻을 최우선에 두고 시정 인수 작업에 임해달라"고 거듭 주문했다.

특히 인수위에서 주어진 핵심과제는 남원발전과 시민 행복을 강조하며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남원의 먹거리는 문제를 해결할 핵심 공약을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남원이 가진 미래 성장동력과 산업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현장에서 들려오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남원의 경쟁력과 가치를 더욱 높여 나갈 것을 강조했다. 남원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시정 비전과 정책방향 정립을



위하여 6개 분과 위원 15명 및 자문위원 30명으로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여 시정 주요 현안과 공약 사업을 점검하는 등 시정 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성공적인 민선 9기 출범을 준비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기안전공사-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 전기안전 강화 맞손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포스코이앤씨가 건설현장 전기안전사고 예방과 시공품질 향상을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포스코이앤씨는 9일 송도 포스코이앤씨 사옥에서 김성주 기술이사(포스코이앤씨)와 박종진 건축사업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기 안전사고 예방 및 시공품질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건설현장의 초기 단계부터 준공까지 전 과정에 걸쳐 체계적인 전기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전기안전공사의 전문 기술력과 포스코이앤씨의 시공 역량을 바탕으로 건설현장의 전기안전 수준을 높이고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전기안전공사는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토목공사 단계부터 골조공사, 사용승인 전 준공 단계까지 시공 단계별 맞춤형 전기안전 진단을 실시한다.

또한 현장별 전기설비 안전 수준을 등급화해 관리하고, 안전관리가 필요한 현장에 대해서는 특별점검과 기술지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이와 함께 가설 설계도면의 전기 안전성 검토와 위험요소 사전 진단,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내 가설 전기공사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 전기안전전문인력 제도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김성주 전기안전공사 기술이사는 "민간 건설 분야를 선도하는 포스코이앤씨와의 협력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며 "이번 협약이 건설현장의 전기안전 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김제시립도서관, 성덕면 찾아 농촌일손돕기

김제시는 지난 5일 시립도서관 직원 12명이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아 인력 부족으로 시름하고 있는 성덕면 소재의 한 마을 재배 농가를 찾아 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9일 밝혔다.

이날 박원용 시립도서관장을 포함한 직원들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마을 수확부터 크기별 선별 작업까지 도맡아 하며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특히 일손 구하기가 어려운 농촌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체험하며, 지역 공동체로서 상생과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도움을 받은 농가 관계자는 "농번기 일손 부족으로 걱정이 가득했는데, 바쁜 업무 중에도 자기 일처럼 찾아와 손을 보태준 도서관 직원들 덕분에 큰 시름을 덜었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박원용 시립도서관장은 "농번기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 황산면, 다육식물 농가 찾아 일손 도와

김제시 황산면 행정복지센터는 직원들이 9일 일손이 부족한 다육식물 농가를 찾아 농촌일손돕기를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일손돕기는 고령화와 인건비 상승 인력난 등으로 농작업에 차질을 겪고 있는 농가를 지원하고, 현장에서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신수미 황산면장을 비롯한 직원 9명은 다육식물 분갈이, 화분정리, 과수원 환경정비 작업 등을 진행하며 무더운 날씨 속에서 구슬땀을 흘렸다.

해당 농가주는 "농번기라 손이 많이 가는 다육식물 관리에 걱정이 많았는데, 황산면 직원들이 바쁜 업무 중에도 일손돕기를 지원해 줘서 큰 시름을 덜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신 면장은 "작은 보탬이지만 일손 부족으로 시름하는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애로사항에 귀 기울이며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현장 소통 행정을 지속적으로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알림

▲제10회 전주한옥마을 전국트로트가요제= 일시: 11일(목) 오후 2시, 장소: 전주풍남문화광장, 주최: (사)한국문화예술진흥회 전주지부, 주관: 전북장애인문화예술봉사단



신임 조성근 부안경찰서장 취임

조성근 서장은 지난 8일 부안경찰서 노을마당에서 과장, 계·팀장, 지역관서장, 협력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9대 부안경찰서장 취임 간담회를 가졌다

조 서장은 부안 경찰과 소중한 인연을 맺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특히 "실력 있는 경찰"은 전문성과 역량을 갖춰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치안 활동을 통해 주민 신뢰를 얻는 기반이라고 설명하고 인권 중심 경찰은 적법철차와 공정성을 바탕으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를 통해 우려를 신뢰로 전환해 나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성근 서장은 "경청, 행동, 실력, 인권이라는 네 가지 핵심 가치는 흔들림 없이 안전하고 평온한 주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기준"이라며 "부안경찰 모두가 한마음을 한 뜻으로 이를 실천해 나갈 때 주민에게 사랑받는 믿음직한 경찰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성근 서장은 경기북부청 기획예산계장·경무계장, 전북청 경무기획정보장비과장을 역임하고, 공감과 소통을 중시하는 온화한 성품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업무 운영을 통해 안정된 지역 치안을 유지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해당화로타리클럽 24~25대 회장 이취임식

국제로타리 3670지구 부안해당화로타리클럽에서는 오는 25일 오후 5시 부안 K컨벤션센터 4층에서 '조아의 봉사'라는 하나의 마음을 모아 제24·25대 회장 및 임원·이사 이·취임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국제로타리 3670지구 임원과 로타리 회원, 기관·사회단체장 및 내빈들이 참석해 신·구 회장단의 노고를 격려하고 새로운 출발을 축하함(2025~2026년도 클럽을 이끌어 온 제24대 회장 김미희(재송화) 회장이 이임하고, 2026~2027년도 제25대 회장 강예순(아이비, 사진) 회장이 취임해 새로운 출발을 알린다.

부안해당화로타리클럽은 지역사회 봉사와 나눔 실천을 통해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을 전하며 여성 리더십을 기반으로 지역 발전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봉사단체다.

부안해당화로타리클럽은 이번 이·취임식을 계기로 새로운 리더십 아래 지역사회 발전과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이어가며 로타리 정신 실천에 더욱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천아트전시회 '날마다 꽃요일' 남원시



남원시는 오는 6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예가탑 문화공간(동헌길 84) 1층 전시실에서 신명진 작가의 천아트 전시회 '날마다 꽃요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남원에서 활동하는 신명진 작가의 천아트 작품을 예가탑 문화공간에서 감상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신명진 작가는 보기만 해도 치유가 되는 꽃을 한 폭의 천에 표현하면서, 완벽한 묘사보다는 그 과정에서 느낀 마음의 고요와 위안을 담아내고자 했으며, 지체한 사항은 남원시청 문화예술과(063-620-6153)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전시는 전시실 속의 화원을 통해 잠시 쉬어가며 마음을 치유하는 공간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리산 마트타운, 인월면 지사협에 두요기탁



남원시 인월면은 관내 지리산 마트타운(김선길 대표)이 지난 8일 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두요 60상자(환가액 120만원)를 기탁했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인월면 2026년 특화사업으로, 기부된 물품은 홀몸 어르신 60가구의 안부와 영양을 챙길 수 있게 되었다.

김선길 대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평소 지역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김 대표는 "어려운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희망이 넘치는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가로연락을 하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